

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외자계보험사, 상하이 보험시장에서 고전 중

□ 중국 최대의 보험시장인 상하이에서 최근 몇 년간 외자계 보험회사들은 실적 부진으로 중국 보험회사들과의 경쟁에서 고전 중인 것으로 나타남.

- 최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중국보험시장 실적 현황에 따르면, 올해 9월까지 상하이 보험시장에서 외자계 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이 16.7%(누적치)에 그치면서 3년 연속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음.
- 같은 기간 상하이 보험시장이 약 500억 위안의 수입보험료 수입으로 전년동기대비 3.91% 규모가 확대되었다는 점을 볼 때, 중국 보험회사들과의 경쟁에서 크게 열세에 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임.

□ 외자계 보험회사들은 1990년대 말 상하이 보험시장에서 최대 90%의 점유율을 기록할 만큼 강세를 보였으나, 현재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임.

- 미국 AIG 계열사인 AIA(생명보험)는 1990년대 말부터 외자계 보험회사로는 최초로 상하이 보험시장에 진출해 한 때 90%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2006년까지 AIA와 AIU(손해보험)는 두 자릿수 성장률을 시현하며 중국계 메이저 보험회사들과 대등하게 상하이 보험시장을 주도했음.
- 그러나 2007년 마이너스 성장률로 전환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한 자릿수 점유율에 그치고 있으며, 상하이 지역에 진출한 모든 외자보험회사들의 수입보험료를 모두 합해도 중국 보험회사인 핑안보험 1개사의 실적에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임.
- 전문가들은 현재 외자계 보험회사들의 경쟁 열위에 대해서 중국 보험회사들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된 부분도 있지만, 주요 채널 중 하나인 방카슈랑스 시장에서 크게 부진함에 따라 이에 대한 치밀한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고 조언하고 있음.

(경제관찰보, 11/13)